

스쿠나히코나 오카미

이 지역은 하치만 지옥이라고 불립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온천이며, ‘사람이 가진 팔만 사천이라는 다종다양한 번뇌로 범한 악행 끝에 떨어지는 지상의 지옥’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운젠의 화산 활동으로 마그마가 천천히 동쪽으로 흘러 더 새롭고 활발한 지옥을 형성하고 있지만, 서쪽의 옛 하치만 지옥은 거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 하치만 지옥은 살벌한 경관으로 인해 일명 ‘게쓰멘 지옥(月面地獄)’이라고도 불리는데, 서서히 역새와 소나무가 자라 풍경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활동은 활발하지 않아도 자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땅에서는 지열로 인한 따뜻한 온기와 대지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광장 일각에는 일본 신화 속에서 일본 건립에 기여한 신들 중 하나인 ‘스쿠나히코나 오카미(少彦名大神)’을 모신 바위가 있습니다. 이 신은 온천과 농업, 약, 그리고 바다 저편에 있는 평범한 땅, ‘도코요노쿠니(常世国)’의 수호신입니다. 운젠의 행복은 많은 온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쿠나히코나와 화산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매년 12월에 이곳에서 축제가 열립니다.